

한성대신문

1976년 12월 15일 창간

www.hansungnews.com

2021년 4월 12일 월요일 제566호

지면안내 02 보도 1차 대의원총회 진행 / 03 사회 목적 없는 강의평가, 학생을 위한 강의평가가 될 수 있을까 / 04 기획 메타버스,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지우다 / 05 서울시장 기획 재선 서울시장의 더 큰 깨달음을 더해, 오세훈

본교, 창의융합대학 신설 계획 발표

총학 “기존 재학생 피해 없도록 해야 할 것”

대학본부 “교육과정 유지하는 등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지난 25일 대학본부가 '창의융합대학(이하 융합대학) 및 특성화 학과 신설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융합대학은 대학 내 특성화 학과가 신설되며, 상상력인재학부가 포함될 계획이다.

본부는 융합대학 명칭을 정하기에 앞서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학생의 의견을 수렴했다. 설문지의 선택지에는 신산업융합대학, 창의융합대학, 미래산업융합대학, 기타가 포함됐다. 설문 응답자 206명 중 99명이 선택한 창의융합대학이 최종 대학 명칭으로 선정됐다.

이번 학사구조 개편은 융합을 통해 수직적 특성화 분야를 육성하려는 배경에서 추진됐다. 수직적 특성화는 학생이 한 분야의 전문지식을 갖도록 하는 교육 방향이다. 융합대학은 전문 지식과 기술 활용 산업분야에 대한 이해력을 갖춘 인재 양성을 목표로 한다. 노광현 기획처장은 “트랙제만 운영하는 것보다 학과 교육과정과 결합하는 방식이 대학의 방향성에 적합하다”라고 설명했다.

본부는 지난 3월 29일까지 모든 트랙을 대상으로 특성화 학과 신설 공모를 받았다. 공모에는 총 6개 학과가 지원했다. 그 중 문학문화콘텐츠학과, AI응용학과가 선정됐다. 문학문화콘텐츠학과는 정원 40명과 야간 30명이고, AI응용학과는 정원 50명과 야간 30명이다. 융합대학의 정원은 상상력인재학부의 정원조정을 통해 구성된다. 상상력인재학부는 주간 150명이며, 야간학부는 운영되지 않는다.

특성화 학과의 선정기준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사회·산업에서 요구하는 인재양성 ▲대학발전계획과의 연계성 및 타 학과의 차별성 ▲우리 대학 학생들의 진로와 특성을 고려한 분야 ▲우리 대학 교원의 특성과 역량을 고려한 분야 ▲전공트랙제에서 충분히 제공하지 못하는 심화융합교육 제공 ▲트랙교육과정과 유연하게 연계된 융합교육 공통기반 제공 등이다. 노 처장은 선정될 학과에 대해 “어느 한 분야에 치중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성화 학과는 미래사회 핵심 전문분야 인재를 배양하는 학과 교육과정을 운영하면서 ▲Micro Degree ▲부전공 ▲복수전공 ▲교양 교과 ▲융합선택 교과 등의 모듈화된 교육과정을 제공한다. 모듈화된 교육과정이란 학생이 원하는 만큼 학문의 깊이를 조절할 수 있는 과정을 말한다. 노 처장은 “작은 학점 단위로 두 가지 이상의 교과목을 모아 융합교육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본부는 타 단과대학 소속 학생도 특성화 학과의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트랙제와 동일하게 제2트랙으로 특성화 학과 선택이 가능한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노 처장은 인원이 몰릴 것을 대비해 “수강 정원의 제한이 없는 트랙제와 달리 특성화 학과는 정원을 제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상상력인재학부의 소속은 융합대학 산하로 바뀌며, 구체적인 학사구조는 융합대학의 세부사항과 함께 결정될 예정이다. 노 처장은 “단과대학 구분 없이 트랙을 선택하는 상상력인재학부의 특징도 바꿀지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서영(스마트 3) 상상력인재학부 부회장은 “트랙 선택권이 상상력인재학부의 존재 이유이므로 해당 특성은 유지돼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본부는 이번 학사구조 개편이 상상력인



▲지난 3월 25일, '2021학년도 제2차 학생대표 간담회'에서 노광현 기획처장이 창의융합대학 및 특성화 학과 신설 기본계획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재학부 학생의 소속감을 개선할 것으로 봤다. 노 처장은 “300명의 정원을 트랙 관계없이 한 대학 소속으로 묶어두기는 어려움이 있지만, 줄어든 정원으로 상상력인재학부 학생의 소속을 4년 동안 유지시키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가연(패션 4) 상상력인재학부 학생회장은 “상상력인재학부의 소속감은 이전부터 꾸준히 문제 제기되었던 부분”이라며, “융합대학 산하로 전체적인 구조가 개편될 경우, 특수학과에 대한 초점이 더욱 맞춰질 것 같다”는 우려를 표했다. 이어 그는 “근본적인 문제점 해결과 더불어 지원 방안, 학사구조 개편 후 발생될 문제점에 대해 고민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연관 트랙을 선택한 재학생들의 피해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박 부회장은 “만약 트랙 폐지가 된다면 기존 재학생은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걱정했다. 이경택(컴공 4) 총학생회장은 “재학생의 피해가 없

비한다는 총학생회의 의견을 본부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특성화 학과로 선정된 트랙의 준폐와 기존 재학생의 소속 및 학적에 대한 내용은 추후 논의될 예정이다. 노 처장은 “만약 트랙이 폐지된다 하더라도 교육과정이 사라지는 개념과 다르다”며, “특성화 학과는 기존 트랙의 교육과정을 포함하는 방향으로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교수진의 소속도 기존 대학에서 융합대학으로 변경된다.

본부는 오는 4월 말까지 학사구조 개편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이사회 보고 및 한국대학교육협의회 승인이 진행된 이후, 특성화 학과 신설을 위한 임시조직(이하 임시조직)을 설립한다. 임시조직은 교육목표, 교육과정, 홍보방안 등 세부사항을 설계한다. 본부는 이를 바탕으로 2022학년도 융합대학 신입생 모집 일정을 진행한다.

박현석 기자 hanseok@hansung.ac.kr

2021학년도 디자인대학, IT공과대학 보궐선거 종료

지난 3월 31일부터 4월 1일까지 디자인대학, IT공과대학(이하 공과대학)과 각 트랙·학부(과)의 보궐선거가 진행됐다. 이번 선거는 온라인으로 실시됐다. 투표 결과 2개 단과대학과 각 트랙·학부(과) 학생회 모두 당선됐다.

제4대 디자인대학 학생회 선거에는 재적인원 1,246명 중 680명이 투표에 나섰다. 'LUMOS' 선거운동본부(이하 선본)의 김택균(ICT 4) 정학생회장 후보와 김세연(뷰티 3) 부학생회장 후보는 찬성 539표(79.27%), 반대 38표(5.59%), 무효 103표(15.15%)를 득표해 당선됐다. 이들의 공약은 ▲문화·예술 지원 사업 ▲자격증, 대외활동, 공모전 등 정보 전달 ▲소모임 비교과 포인트 지원 사업 등이다. 김택균 당선자는 “디자인대학 학생에게 자격증, 공모전 등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며, “학우를 위해 항상 노력하는 학생회가 되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제23대 IT공과대학 학생회 선거에는 재적인원 2,038명 중 1,236명이 참여했다. 개표 결과, '울림' 선본의 배기빈(산업경영 4) 정학생회장 후보와 이민규(전자 3) 부학생회장 후보는 찬성 903표(73.06%), 반대 138표(11.17%), 무효 195표(15.78%)를 받아 당선됐다. 이들은 ▲온라인 소통 활성화 ▲실습 및 실습장비 홍보 ▲스터디 회수 사업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배기빈 당선자는 “트랙별로 온라인 소통을 활성화해 학우 간의 소통을 도울 예정”이라며, “학우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권노는 기자 imgold20@naver.com

2022학년도 한성대학교 대학원 학·석사연계과정 모집

완성으로 가는 또 다른 시작

가능성을 실현하는 첫걸음!

전공분야의 진정한 전문가로 우뚝 서고 넓은 식견의 지식인으로 성큼 나아가도록 한성대학교 대학원의 무한한 가능성이 미래의 리더, 당신과 함께하겠습니다.

HSU 한성대학교 HANSUNG UNIVERSITY

일반대학원(주간)			지원자격 및 입학허가요건(학사졸업요건)			
대학원 학위구분	모집계열	모집학과	신발트랙	지원자격	입학허가요건(학사졸업요건)	
일반 대학원	인문계	한국어문학과	한국어문학, 문화콘텐츠, 한국어교육	조기트랙 (2022년 8월 졸업 예정자) 학부 3.5년 + 대학원 1.5년	· 지원시까지 전학년 평균평점 3.3 이상 · 7학기내 학부 졸업요건 충족 (지원시점 5학기 이후 예정자 혹은 5학기 이수 완료자)	
		사학과	한국사, 동양사, 서양사		정규트랙 I (2022년 2월 졸업 예정자) 학부 4년 + 대학원 1.5년	· 지원시까지 전학년 평균평점 3.0 이상 · 8학기내 학부 졸업요건 충족 (지원시점 7학기 이후 예정자 혹은 7학기 이수 완료자)
		문화정보학과	문화정보학, 기록관리학			· 전 학년 평균평점이 3.3 이상이고 기타 학사 졸업 요건 충족 · 학부 재학 중 대학원 과목 6학점 이상 취득 · 학부 재학 중 연구활동계획서 2회 제출 · 졸업 직후 학기 대학원 등록
	사회계	무역학과	국제경제, 국제경영, 국제무역사무	정규트랙 II (2022년 8월 졸업 예정자) 학부 4년 + 대학원 1.5년		· 전 학년 평균평점이 3.3 이상이고 기타 학사 졸업 요건 충족 · 학부 재학 중 대학원 과목 6학점 이상 취득 · 학부 재학 중 연구활동계획서 1회 제출 · 졸업 직후 학기 대학원 등록
	경영학과	인사조직, 재무관리, 서비스운영관리, 마케팅, 회계학, 경영정보	· 지원시까지 전학년 평균평점 3.0 이상 · 8학기내 학부 졸업요건 충족 (지원시점 6학기 이후 예정자 혹은 6학기 이수 완료자)		· 전 학년 평균평점이 3.3 이상이고 기타 학사 졸업 요건 충족 · 학부 재학 중 대학원 과목 6학점 이상 취득 · 학부 재학 중 연구활동계획서 2회 제출 · 졸업 직후 학기 대학원 등록	
	행정학과	행정학, 정책학			* 학부 편입생 및 외국인유학생 지원 불가 * 학부 졸업학기 총강 후 1달 이내에 학사지원팀 현소를 통해 학사졸업요건 충족 여부 확인 후 대학원 입학허가 * 학사졸업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대학원 등록을 하지 않을 경우 학사사건연계과정 자격상실. 조기트랙(7학기내 학사과정을 졸업) 합격자는 학사졸업을 위해 6학기 이상 등록해야 함	
	경제학과	경제학, 부동산경제학, 지급결제·신금융		지원방법 및 발표 · 모집공고 : 대학홈페이지(http://hansung.ac.kr) - 한성소식 - 한성공지 - 공지사항] 확인 및 학과(전공) 사무실 안내 · 모집기간 : 2021. 4. 12.(월) ~ 4. 23.(금) · 지원방법 : - 지원자격을 고려하여 조기트랙, 정규트랙 I, 정규트랙 II 중 1개 선택 - 학사사건연계과정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 접수 기간 내 소속 학과(전공) 사무실에 (학사사건연계과정 신청서 1부) 및 (학부 성적증명서 1부) 제출 · 합격자발표 : 1학기 중강 후 1달 이내에 선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발표. [대학홈페이지(http://hansung.ac.kr) - 한성소식 - 한성공지 - 공지사항] 참고 · 전화문의 : (02)760-4271(대학원 교학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학홈페이지(http://hansung.ac.kr) 모집공고 참고 또는 대학원으로 전화문의 바랍니다.		
	공학계	산업경영공학과	산업경영공학			* 대학원 지원 학과(전공)는 학부의 주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및 부전공과 관련된 학과(전공)에 한함 * 트랙제 시행 이후 입학한 학부 재학생은 대학원 교학팀에 문의하여 트랙 모과 확인 후 지원 요망(트랙 교육과정과 대학원 교육과정 상호 연계 확인)
	컴퓨터공학과	컴퓨터공학	· 지원자격 : - 지원자격을 고려하여 조기트랙, 정규트랙 I, 정규트랙 II 중 1개 선택 - 학사사건연계과정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 접수 기간 내 소속 학과(전공) 사무실에 (학사사건연계과정 신청서 1부) 및 (학부 성적증명서 1부) 제출 · 합격자발표 : 1학기 중강 후 1달 이내에 선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발표. [대학홈페이지(http://hansung.ac.kr) - 한성소식 - 한성공지 - 공지사항] 참고 · 전화문의 : (02)760-4271(대학원 교학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학홈페이지(http://hansung.ac.kr) 모집공고 참고 또는 대학원으로 전화문의 바랍니다.			
	IT융합공학과	IT융합공학		· 지원자격 : - 지원자격을 고려하여 조기트랙, 정규트랙 I, 정규트랙 II 중 1개 선택 - 학사사건연계과정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 접수 기간 내 소속 학과(전공) 사무실에 (학사사건연계과정 신청서 1부) 및 (학부 성적증명서 1부) 제출 · 합격자발표 : 1학기 중강 후 1달 이내에 선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발표. [대학홈페이지(http://hansung.ac.kr) - 한성소식 - 한성공지 - 공지사항] 참고 · 전화문의 : (02)760-4271(대학원 교학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학홈페이지(http://hansung.ac.kr) 모집공고 참고 또는 대학원으로 전화문의 바랍니다.		
	예체능계	회화과			동양화와 진채화, 현대미술	· 지원자격 : - 지원자격을 고려하여 조기트랙, 정규트랙 I, 정규트랙 II 중 1개 선택 - 학사사건연계과정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 접수 기간 내 소속 학과(전공) 사무실에 (학사사건연계과정 신청서 1부) 및 (학부 성적증명서 1부) 제출 · 합격자발표 : 1학기 중강 후 1달 이내에 선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발표. [대학홈페이지(http://hansung.ac.kr) - 한성소식 - 한성공지 - 공지사항] 참고 · 전화문의 : (02)760-4271(대학원 교학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학홈페이지(http://hansung.ac.kr) 모집공고 참고 또는 대학원으로 전화문의 바랍니다.
	무용학과	무용공연, 무용이론, 기록교무용, 발레교수법	· 지원자격 : - 지원자격을 고려하여 조기트랙, 정규트랙 I, 정규트랙 II 중 1개 선택 - 학사사건연계과정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 접수 기간 내 소속 학과(전공) 사무실에 (학사사건연계과정 신청서 1부) 및 (학부 성적증명서 1부) 제출 · 합격자발표 : 1학기 중강 후 1달 이내에 선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발표. [대학홈페이지(http://hansung.ac.kr) - 한성소식 - 한성공지 - 공지사항] 참고 · 전화문의 : (02)760-4271(대학원 교학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학홈페이지(http://hansung.ac.kr) 모집공고 참고 또는 대학원으로 전화문의 바랍니다.			
미디어디자인학과	시각커뮤니케이션디자인, 애니메이션, 인터랙티브디자인, 제품디자인, 영상커뮤니케이션디자인, VMD - 전시디자인	· 지원자격 : - 지원자격을 고려하여 조기트랙, 정규트랙 I, 정규트랙 II 중 1개 선택 - 학사사건연계과정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 접수 기간 내 소속 학과(전공) 사무실에 (학사사건연계과정 신청서 1부) 및 (학부 성적증명서 1부) 제출 · 합격자발표 : 1학기 중강 후 1달 이내에 선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발표. [대학홈페이지(http://hansung.ac.kr) - 한성소식 - 한성공지 - 공지사항] 참고 · 전화문의 : (02)760-4271(대학원 교학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학홈페이지(http://hansung.ac.kr) 모집공고 참고 또는 대학원으로 전화문의 바랍니다.				
학과간 협동과정	뉴미디어			뉴미디어광고프로모션	· 지원자격 : - 지원자격을 고려하여 조기트랙, 정규트랙 I, 정규트랙 II 중 1개 선택 - 학사사건연계과정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 접수 기간 내 소속 학과(전공) 사무실에 (학사사건연계과정 신청서 1부) 및 (학부 성적증명서 1부) 제출 · 합격자발표 : 1학기 중강 후 1달 이내에 선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발표. [대학홈페이지(http://hansung.ac.kr) - 한성소식 - 한성공지 - 공지사항] 참고 · 전화문의 : (02)760-4271(대학원 교학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학홈페이지(http://hansung.ac.kr) 모집공고 참고 또는 대학원으로 전화문의 바랍니다.	
국제이주협력학과	국제이주협력		· 지원자격 : - 지원자격을 고려하여 조기트랙, 정규트랙 I, 정규트랙 II 중 1개 선택 - 학사사건연계과정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 - 접수 기간 내 소속 학과(전공) 사무실에 (학사사건연계과정 신청서 1부) 및 (학부 성적증명서 1부) 제출 · 합격자발표 : 1학기 중강 후 1달 이내에 선발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발표. [대학홈페이지(http://hansung.ac.kr) - 한성소식 - 한성공지 - 공지사항] 참고 · 전화문의 : (02)760-4271(대학원 교학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학홈페이지(http://hansung.ac.kr) 모집공고 참고 또는 대학원으로 전화문의 바랍니다.			

1차 대의원총회 진행, 2021학년도 상반기 예산 확정해

지난 23일, 2021학년도 전반기 1차 대의원총회(이하 총회)가 열렸다. 이번 총회는 오전, 오후로 나눠 진행됐으며, 2021학년도 상반기 중앙운영위원회(이하 중운위) 소속 학생회 예산 인준이 안건으로 상정됐다. 이 자리에는 중운위 소속 학생대표 6명 및 대의원 총 54명 중 52명이 참석했다. 모든 예산안은 재적 대의원 중 과반의 찬성을 받았다. 인준된 예산은 총 30,380,690원이다.

총학생회 'EASY'는 1학기 예산으로 총 16,626,600원을 책정받았다. 세부 항목으로는 온라인 축제, 낙산제전, 전국대학생네트워크 1학기 분담금 등이 포함됐다.

총대의원회 '파란' (이하 총대)은 1학기 총 890,800원을 예산으로 인준받았다. 예산안 세부 항목은 대의원총회, 상임위원 감사 OT, 재선거 등으로 구성됐다. 올해부터

도입된 총대 감사 위탁 비용으로는 32,800원이 책정됐다.

학생복지위원회 '바다' (이하 학복위)는 1학기 예산으로 총 5,210,410원을 승인받았다. 학복위의 1학기 예산안은 대여사업, 소독 및 방역체계 구축, 시험기간 응원 간식 사업, 일회용품 제공사업, 주차권 공동구매 사업 등을 포함한다.

동아리연합회 'ONLY'는 총 2,240,000원을 인준받았다. 예산안에는 동아리 회장 공로금, 감사 자료집 배포, 대여 사업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예산의 37.5%를 차지한 대여 사업의 세부 항목으로는 앰프와 마이크 구입 등이 있다. 앰프와 마이크는 18년도에 분실된 대여물품이다. 나기리(컴공 3) 동아리연합회장은 "분실사고 예방을 위해 장부를 작성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크리에이티브인문예술대학 학생회 '공감'은 시험기간 간식사업, 페스티벌 '공감', 문화사업, 프린트 지원사업 등에 대해 총 2,640,490원을 인준받았다.

미래융합사회과학대학 학생회 '은유'의 예산은 1학기 총 2,772,390원으로 인준됐다. 세부 항목으로는 시험기간 간식 및 격려 사업, 카카오톡 메시지 전송, 신입생·재학생 이벤트, 방역사업, 프린트 지원 사업 등이 있다.

디자인대학과 IT공과대학 학생회의 예산안 인준은 이뤄지지 않았다. 작년 11월 진행된 2021학년도 학생자치기구 총선거 당시, 출마한 후보자가 없어 학생회를 구성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5월 18일에 열리는 2021학년도 상반기 2차 대의원총회에서 예산안을 인준받을 예정이다.



▲지난 3월 23일에 진행된 '2021학년도 전반기 1차 대의원총회'에서 참석한 대의원들이 의결권을 행사하고 있다.

이번 총회에서는 대의원 오리엔테이션도 이뤄졌다. 오리엔테이션은 총대 의장이 대의원에 대해 그들의 역할을 설명하는 것으로 진행됐다. 각 트랙별 3학년 혹은 4학년

대의원 1인이 상임위원이 된다. 작년에 개정된 학생회칙에 따라, 올해는 상임위원 네 명이 총대 감사를 맡는다. 상임위원은 학기별로 두 번, 1년 동안 총 네 번의 감사를

해야 한다. 차원식(스마트 4) 총대 의장은 "감사를 진행할 상임위원은 5월 중에 지원자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한석 기자 hanseok@hansung.ac.kr

2021학년도 동아리 투어 개최돼

동아리연합회(이하 동연회)는 지난 3월 22일부터 4월 2일까지 '동아리 투어'를 진행했다. 동아리 투어는 신입 부원 모집을 위해 각 동아리의 활동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행사이다.

이번 행사는 3월 22일부터 26일, 3월 29일부터 4월 2일까지 총 10차례 개최됐다. 투어는 동아리 활동에 관심 있는 신입생과 재학생 누구나 참여 가능했으며 하루에 총 2번, 오전과 오후로 나눠 진행됐다. 행사에는 총 29개의 동아리가 참여했다.

동아리 투어 행사는 크게 1부와 2부로 나뉘었다. 상상관 1층 상상홀에서 진행된 1부 행사는 ▲행사 일정 소개 ▲참여 동아리 소개 ▲동아리 관련 퀴즈 순으로 이뤄졌다. 퀴즈를 맞춘 참가자에게는 상상부기 배지 등 상품이 주어졌다.

2부 행사는 투어에 참여한 학생을 3~4개의 조로 나눠 진행됐다. 참여 학생은 동연회 진행 요원의

인솔 하에 인성관으로 이동해 동아리 활동 공간을 방문했다. 각 동아리는 참여 학생에게 동아리 활동, 동아리 SNS 등을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후 참가자를 대상으로 동아리 투어 만족도 설문 조사가 진행됐다.

차정은(컴공 3) 동물복지동아리 '냥둥이' 회장은 "참여자에게 동아리 현장을 보여주고 활동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줄 수 있어서 좋았다"라고 말했다. 동아리 투어에 참여한 김희주(사회과학 1) 학생은 "궁금했던 동아리 정보에 대해 알 기회가 마련돼 큰 도움을 얻었다"고 소감을 밝혔다.

나기리(컴공 3) 동아리연합회장은 "신입생이 동아리 선배와 대화를 통해 관심 있는 동아리를 자유롭게 탐색할 기회를 마련하고자 했다"며 "다양한 동아리 활동을 위해 여러 행사를 계획 중"이라고 밝혔다.

박지연 기자
pjy0314@hansung.ac.kr

일반대학원 2022학년도 학석사연계과정생 모집해

본교 일반대학원에서 4월 12일부터 4월 23일까지 2022학년도 학석사연계과정생을 모집한다. 학석사연계과정은 본교 학부생이 일반대학원에서 5년 혹은 5.5년 동안 학사와 석사학위를 동시에 취득할 수 있는 학위 연계 과정이다.

학석사연계과정의 모집인원은 총 20명 내외다. 모집 대상은 2022년 2월 졸업예정자, 2022년 8월 졸업예정자다. 지원할 수 있는 대학원 학과(전공)는 학부의 주전공, 복수전공, 연계전공 및 부전공과 관련된 학과(전공)다. 단, 학부 편입생 및 외국인 유학생은 지원할 수 없다.

지원자는 ▲조기트랙(2022년 8월 졸업 예정자, 학부 3.5년+대학원 1.5년) ▲정규트랙 I (2022년 2월 졸업 예정자, 학부 4년+대학원 1.5년) ▲정규트랙 II (2022년 8월 졸업 예정자, 학부 4년+대학원 1.5년) 중 한 가지를 골라 지원하면 된다. 여기서 트랙은 학부에서

운영하는 트랙(전공)과는 다른 의미로 지원자격을 구분하는 단위다. 지원자는 1가지 트랙을 선택한 뒤 학과(전공) 사무실에 학석사연계과정 신청서 및 학부 성적증명서를 제출하면 된다.

선발은 모집인원 내에서 학부(전공)별 지원 학생의 비율로 성적으로 정해진다. 합격자는 5월 혹은 6월 중에 발표되며, 본교 홈페이지 및 개별 공지될 예정이다. 학석사연계과정에 선발된 본교 학부생은 입학금 및 첫 학기에 한해 수업료 70%를 면제받을 수 있다.

박명환 대학원장은 "학석사연계과정생은 대학원 입학 전 대학원 수업을 수강해 연구 활동을 선행해볼 수 있다"며 "자신이 연구하고 싶은 분야를 미리 고민해 대학원 입학 후 그 분야 연구에 더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혜정 기자
hj716@hansung.ac.kr

학술정보관 온라인 이용교육 수강생 모집

학술정보관에서 오는 4월 29일까지 온라인 이용교육을 제공한다. 누리미디어, EBSCO, ProQuest 기관이 직접 참여해 학술정보 활용 방법에 대해 안내한다. 학내 구성원 누구나 온라인 이용교육에 참여 가능하다.

참여 희망자는 학술정보관 홈페이지에서 원하는 날짜, 요일, 교육을 미리 신청해야 하며, 정해진 날짜에 이메일로 교육 참여 URL을 받을 수 있다. 교육은 Webex 또는 Zoom으로 진행되며, 1시간 정도 진행된다.

수강생은 전자정보원 이용 및 학술정보 활용 방법에 대해 배울 수 있다. 교육은 ▲도서관 학술정보 활용법과 연계한 리포트 작성법 ▲전 주제 분야의 학술정보 탐색하기 ▲EBSCO Mobile 앱 이용 교육 ▲비즈니스 분야 학술 논문 및 아티클 탐색 ▲전 주제 분야의 전자책 조사·활용법 ▲음악 및 무용 분야 학술자료 활용법 ▲IT, 소프트웨어,

컴퓨팅, 비즈니스 분야의 자료조사 및 이용법 ▲전 주제 분야에 대한 교육·학술용 영상 자료 활용법 등 총 8개 수업으로 구성돼 있다.

온라인 이용교육에 참여한 학부생은 한 강의 당 비교과 포인트 5pt를 받을 수 있으며, 최대 비교과 포인트 40pt까지 획득 가능하다. 단, 중복 수강된 강의의 비교과 포인트 지급은 불가하다.

참여자는 강의 수강한 뒤 설문지를 반드시 작성해야 비교과 포인트를 얻을 수 있다. 설문지는 수업 내용에 대해 묻는 간단한 질문으로 이뤄져 있다.

조용훈(학술정보관) 팀원은 "5월과 6월에도 동일한 내용으로 교육이 진행된다"며 "많은 학내 구성원이 온라인 이용교육에 참여해 집에서 학술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권노은 기자
imgold20@naver.com

한성대신문

언제, 어디서나 볼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
www.hansungnews.com



인스타그램
@hansungnews



카카오톡채널
@hansungnews



에브리타임
게시판 > 한성대신문사



페이스북 페이지
facebook.com/hansungpresscenter

목적 잃은 강의평가, 학생을 위한 강의평가가 될 수 있을까

한 학기가 마무리될 시기가 되면 학교 홈페이지에는 강의평가 안내문이 올라온다. 강의평가는 학생이 참여하며, 이수한 강의 및 교수에 대한 전반적인 피드백을 실시해 교수에게 전달된다. 한 학기가 끝나고 강의 평가가 진행되는 이유는 교수가 낮은 평가를 받은 항목을 다음 학기 강의에서 보완해 강의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다. 현재 서울권 4년제 대학 43개 중 26개의 학교가 학교가 강의평가를 일 년에 4번 시행하고 있다.

강의평가는 대학마다 의무적으로 진행된다. 교육부는 대학의 교육 실적과 계획을 관리하고 지원하는 '교육개혁추진 우수대학 재정지원 사업'을 진행했다. 대학 평가항목에 강의평가 실시 여부가 추가되면서 의무적으로 강의평가를 실시하게 됐다.

대학은 학생의 강의평가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강제적인 수단을 마련했다. 현재 서울권 4년제 대학 44개 중 43개의 학교가 강의평가 미참여 시 성적조치 기간 내 성적열람을 할 수 없도록하거나 이의신청이 불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학생들의 강의평가 참여율은 눈에 띄게 증가했지만, 의무적인 강의평가로 인해 평가항목에 같은 번호를 부여해 제출하는 학생이 증가하면서 강의평가 자료의 질적 수준은 낮아졌다.

학생만 모르는 강의평가 결과

현재 서울권 4년제 대학 44개 중 11개의 학교가 강의평가 결과를 학생에게 공개하고 있지 않다. 강의평가 결과를 알지 못하는 학생은 대부분 학내 커뮤니티 속 강의평가를 이용해야 한다. 본교에 재학 중인 최가은(인문 2) 학생은 "커뮤니티 내 강의평가는 제대로 된 지표 없이 학생의 주관적인 평가가 들어가 있다"며 "강의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찾아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본교도 현재 학생에게 강의평가 결과를 전체적으로 공개하고 있진 않으나, 매년 수업만족도 우수강의를 공지하고 있다. 우수강의를 공지하는 것은 학생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낮은 점수를 받은 강의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순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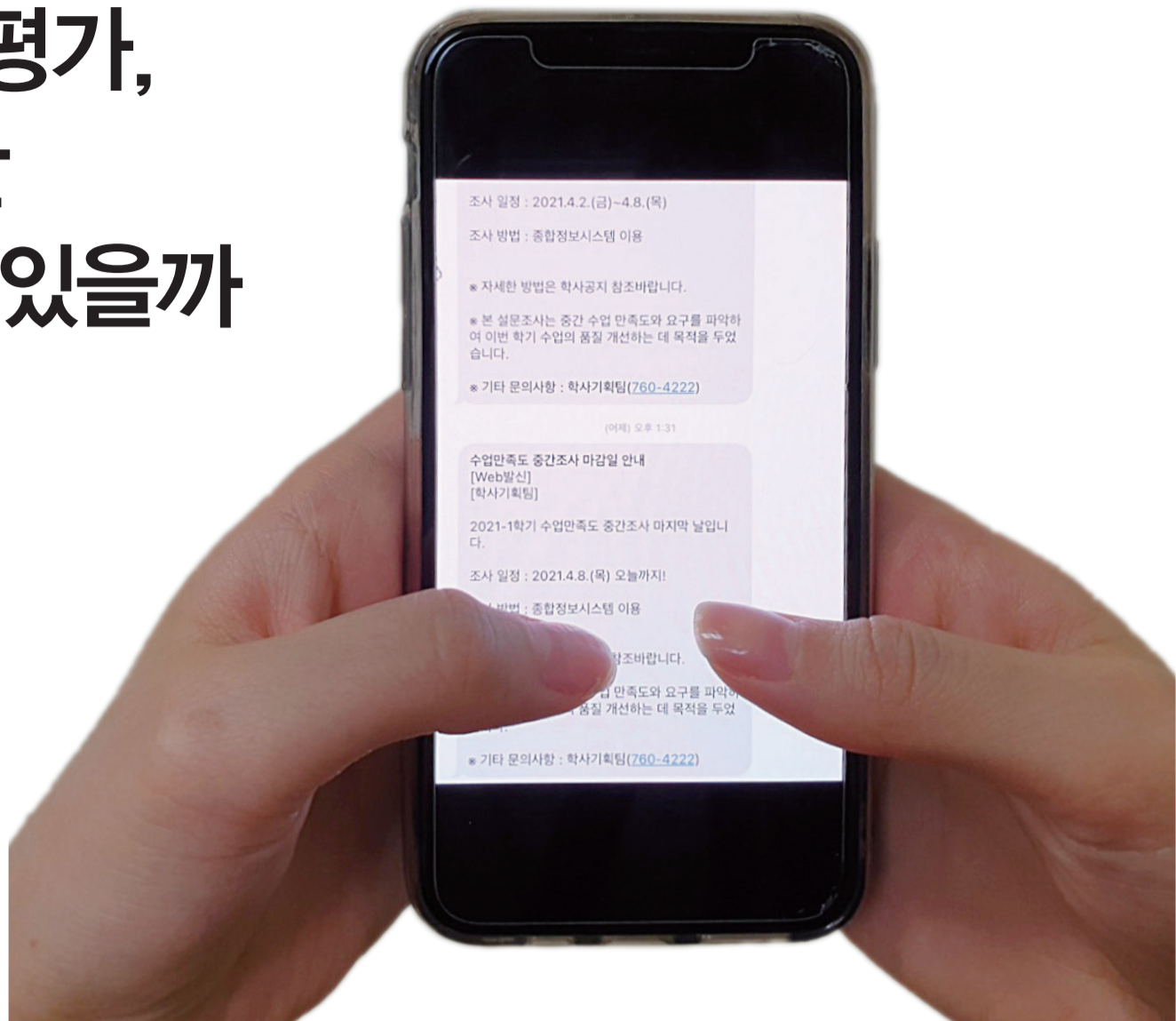
대부분의 대학은 교수가 평가에서 심각하게 낮은 점수 받을 경우 경고 조치를 마련하고 있지만 강의평가 결과를 강제적으로 이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실시하고 있지 않다. 학생들은 강의평가 결과가 교수에게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아 해당 강의에 결과가 반영됐는지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익명을 요청한 본교 재학생은 "지금까지 2년간 강의평가 결과가 강의에 반영돼 강의의 질이 높아졌다고 느낀 적이 없다"고 지적했다. 김현미(학사기획팀) 팀장은 "교수가 강의 개선 이행 여부를 강제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것은 교권 침해의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영되지 못한 강의 특수성

강의평가 항목이 강의의 특수성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는 점도 학생이 강의평가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주요 원인이다. 고려대학교 가정교육학과 2학년에 재학 중인 권정우 학생은 "교수가 진행하는 강의방법에 따라 평가항목이 차별화될 필요가 있다"며 "이론 위주의 강의와 토론을 중심으로 하는 강의의 평가항목이 동일한 점은 문제"라고 말했다.

강의는 진행 방식에 따라 학생의 참여도가 달라진다. 이론강의에선 학생이 수업을 일반적으로 듣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실기·실습 강의는 학생이 적극적으로 강의에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교수 역시 강의계획서를 작성할 때 수업방법, 수업형태, 주교재, 주차별 수업계획 등 세부적인 사항을 고려해 작성한다.

본교의 경우, 일반과목과 실습과목 강의의 각각 평가항목에 차이가 없다. 본교 일반교양 및 전공과목의 강의평가 항목은 ▲강의 유형을 잘 표현한 항목 선택 ▲온라인 동영상 콘텐츠 화질 및 음질 만족도 ▲실시간 화상강의 만족도 ▲강의에서 좋았던 점(최대 3개까지 선택) ▲온라인 동영상 강의 개선점(최대 3개까지 선택) ▲실시간 화상



강의 개선점(최대 3개까지 선택) ▲좋은 점 혹은 개선점 서술로 구성돼 있다. 실습과목의 경우 ▲강의 내용 만족도 ▲교수 강의 방법 만족도 ▲강의에서 활용된 수업자료 및 매체 만족도 ▲개선점 혹은 희망사항 서술로 이뤄져 있다. 익명을 요청한 한국교육행정학회 관계자는 "강의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평가항목을 토대로 교수가 강의를 개선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강의평가 익명성 보장 문제 해결돼야

대부분의 대학은 강의평가 안내문을 공지할 때 익명성이 보장된다고 안내한다. 이런 대학의 안내와는 다르게 강의평가 기간마다 대학 커뮤니티에는 강의평가의 익명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글이 올라온다.

실제로 한 대학생은 학기가 끝날 때 즈음 교수에게 이메일을 보냈으나, 교수가 며칠간 답장을 하지 않았다. 그는 강의평가 기간에 메일을 보냈는데 답장을 하지 않는 등 학생에 대한 피드백이 부족하다고 작성해 제출했다. 그 후에 교수가 서운했나며 말을

걸었다고 했다. 한국교육행정학회 관계자는 "서술형 항목 같은 경우에는 객관식 문항과 달리 교수가 직접 학생을 찾아낼 수 있는 확률이 높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서울권 4년제 대학 44개 모두 강의평가를 진행하기 위해 학교포털사이트에서 로그인을 해야 한다. 학생들은 로그인을 한 뒤 이뤄지는 강의평가 과정에서 익명성이 보장된다는 학교 측 입장에 동의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익명을 요청한 본교 재학생은 "강의평가가 로그인을 한 뒤에 이뤄지기 때문에 익명성이 제대로 보장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며 "학과 특성상 강의가 소수 인원으로 진행된다면 교수가 강의평가 결과를 확인할 때 실명이 공개되지 않더라도 누군지 대충 파악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교육행정학회 관계자는 "대형강의의 경우 강의를 듣는 학생이 많아 익명성이 보장될 가능성이 높다"며 "소수 인원으로 구성된 강의의 경우에는 강의평가를 하는 과정에서 익명성이 보장되기 어려울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학생을 위한 강의평가 필요해

전문가는 강의평가 결과를 학생에게 공개하는 방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육행정학회 관계자는 "학교에서 강의평가 결과를 공개하게 되면 학생이 수강신청을 할 때 좋은 평가를 받은 강의와 낮은 평가를 받은 강의를 구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부 대학은 강의평가를 학생에게 공개하고 있다. 동국대학교의 경우, 학생이 교내 전산정보시스템을 통해 강의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동국대학교 관계자는 "학생이 수강신청 전에 학교에서 제공하는 강의평가 결과를 활용해 수업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어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익명을 요청한 동국대학교 재학생은 "학교에서 강의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주변 학우들도 수강신청 전에 강의평가 결과를 열람해 교과목에 대한 정보를 얻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는 강의평가의 익명성 보장을 위해 학생에게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교육행정학회 관계자는 "학생에게 강의평가가 어떻게 활용되며, 수집된 데이터가 어떻게 투명하게 관리되는지, 강의평가 시 학생들이 로그인을 한 뒤에 평가를 진행해야 하는 이유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수업 개선을 위한 강의평가 이뤄져야

한국교육행정학회 관계자는 "강의의 질 개선을 위한 강의평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강의계획서, 수업 교재, 교수의 전문성 등 강의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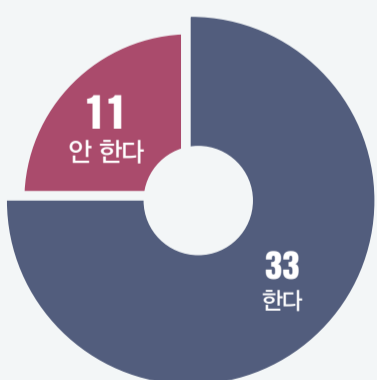
일부 대학은 이러한 특수성을 반영한 강의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실제로 충북대학교의 강의평가 항목은 ▲강의계획서를 통해 수업의 목표 내용, 일정, 평가 등에 대해 알 수 있었다 ▲교재 및 강의자료는 수업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됐다 ▲학생의 수준이나 수업 내용에 맞는 적절한 수업 방식이 사용됐다 ▲학생이 이 수업을 통해 과목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등으로 이뤄져 있다. 한국교육행정학회 관계자는 "충북대학교 강의평가 항목이 만들어질 때 교육 전문가가 주축이 돼 문항을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는 강의평가의 목적은 강의의 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교육행정학회 관계자는 "대학에서 강의평가를 진행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강의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다. 강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수학습방법"이라며 "강의가 교수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옮겨가는 PBL 교육방법을 도입하는 것도 강의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강의의 질을 높이기 위한 강의평가를 만들기 위해 해결돼야 할 문제가 많은 상황이다. 강의를 진행하는 교수와 그 강의를 듣는 학생의 원활한 소통도 중요하다. 강의의 질을 높이기 위해 이들의 끊임없는 상호작용이 필요한 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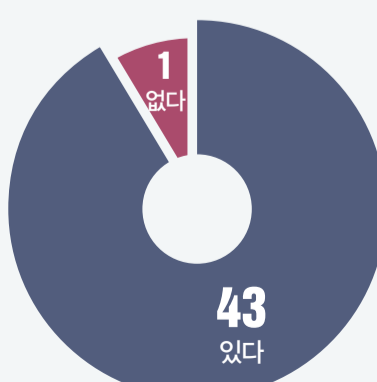
조정은 기자 cje0406@naver.com

학생에게 강의평가 결과를 공개하는 서울권 4년제 대학의 수



*대상 : 서울권 4년제 63개 대학 중 44개의 대학

학생이 강의평가를 하지 않을 시 불이익을 주는 서울권 4년제 대학의 수



*대상 : 서울권 4년제 63개 대학 중 44개의 대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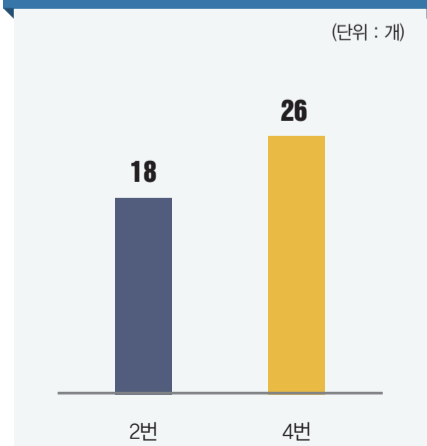
수시로 학생이 강의평가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야

강의의 특수성 고려한 강의평가 필요해

강의평가 결과 이행 여부, 교권 침해 우려 있어

학습자 중심의 강의평가 도입해야

1년 동안 강의평가를 진행하는 횟수



*대상 : 서울권 4년제 63개 대학 중 44개의 대학

메타버스, 현실과 가상의 경계를 지우다

현실보다 더 생생한 가상세계

집콕이 대세인 요즘, 메타버스가 사람들에게 주목받고 있다. 메타버스 게임인 '모여봐요 동물의 숲'은 2020년 3월에 출시된 해에만 3,118만 장이 팔릴 정도로 전 세계에서 큰 인기를 끌었다. 유저는 귀여운 게임 속 캐릭터가 되어 무인도를 개성있게 꾸미고 다른 유저와 만나며 시간을 보낸다. 타임지가 비대면 시대에 보기 드문 편안함을 주었다며 2020년 최고의 발명품 중 하나로 선정하기도 했다. 대체 메타버스가 무엇인가에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고 있을까?

현실과 가상이 만나는 공간

메타버스(Metaverse)는 1992년 닐 스티븐슨의 소설 '스노우 크래쉬'에서 처음 등장했다. '초월, 그 이상'을 뜻하는 그리스어 메타(Meta)와 '세상, 우주'를 뜻하는 유니버스(Universe)의 합성어로, 쉽게 실제 현실과 가상세계가 상호작용하는 3차원 가상공간을 말한다. 메타버스는 구현 공간과 정보 형태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증강 현실은 현실에 가상정보를 증강하여 제공하며, 라이프로그(Life logging)은 개인·개체들의 현실 생활에서 이루어지는 정보를 통합 제공한다. 또한, 가상공간에 외부 환경 정보를 통합 제공하는 거울세계와 가상공간에 다양한 개인·개체들의 활동 기반을 제공하는 가상세계로 분류된다.

이러한 4가지 유형이 독립적으로 발전해왔던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서로 융합 및 상호작용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로 활용되고 있다. 한상열(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지능데이터연구팀) 연구원은 "가상과 현실이 상호작용하며 함께 진화하고, 그 속에서 사회, 경제, 문화 활동을 이루어 가치를 창출하는 세상이 곧 메타버스"라며 "기술 및 서비스가 발전함에 따라 메타버스 플랫폼 역시 더욱 다양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메타버스가 최근 들어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 배경에는 디지털 환경의 주 소비자인 Z세대와 과거보다 발달한 IT 기술이 있다. 1990년대 중후반에서 2010년대 초반에 걸쳐 출생한 Z세대는 유소년기부터 디지털 기기를 접한 만큼 디지털 환경에 익숙하다. 더불어 코로나19로 비대면 문화가 보편화되면서, Z세대는 더욱 많은 시간을 디지털 환경에서 보내고 있다.

또한, 메타버스는 기존 PC·모바일 중심의 인터넷과 비교했을 때, 편의성, 상호작용, 확장성 면에서 큰 차이가 존재한다. 메타버스 가상공간을 구현하는 기기는 기존의 휴대하는 방식에서 직접 착용하는 방식으로 바뀌어 편의성이 증가했다. 메타버스는 이러한 웨어러블 기기와 합쳐져 더욱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 인터넷은 음성, 텍스트를 활용해 한정적인 상호작용만 가능했지만, 메타버스는 음성과 텍스트를 넘어 동작, 시선 등 오감을 사용하는 방향으로 진화하고 있다. 확장성 역시 2D 웹 화면에서

화면의 제약이 사라진 3D 공간 웹으로 진화하고 있다. 현재는 PC나 모바일 기기의 화면에 3D를 구현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시간이 지나 VR, AR 기기가 보편화된다면, 메타버스의 활용 가치는 더욱 높아질 전망이다.

메타버스 가상공간을 구현하는 VR, AR 기기 회사는 흐름에 맞춰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VR, AR 기기 가격은 낮아지고, 성능은 향상되고 있다. 페이스북의 자회사 오кул러스(Oculus)에서 출시한 VR 기기 '오кул러스 퀘스트(Quest) 2'는 다른 경쟁사의 VR 기기보다 훨씬 낮은 가격인 299달러로, 한국에서는 41만 4,000원에 판매된다. 시장 가격이 꾸준히 낮아지면서 저렴하지만 전보다 성능은 향상된 기기의 보편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현실에 영향을 미치는 가상세계

메타버스는 게임, SNS를 비롯한 서비스 플랫폼과 결합해 나타난다. 현재 일상에서 메타버스를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플랫폼은 게임이다. 자유로운 게임 내에 자신의 아바타를 만들고 다른 유저와 협력하며 다양한 사회·문화적 교류가 가능하다. 게임 외에도 건설, 엔지니어링, 자동차 설계 등 타 산업과의 결합도 이뤄지고 있다.

대표적인 게임 엔진 제작 기업인 '유니티(Unity)'에서 제작한 '유니티 포마(Forma)'는 제품의 연구·개발 단계부터 마케팅까지 폭넓게 사용된다. 연구·개발 단계에는 시제품을 실제로 제작하는 대신 3D 데이터로 만들고 문제점을 찾아내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마케팅 단계에서 고객이 사진 대신 3D 데이터를 체험할 수 있어 제품을 선택하는 데도 도움을 준다. 한 연구원은 "메타버스는 현실에서 제공하기 힘든 다양한 훈련·교육 상황을 재현하는 교육 수단으로서도 유용하다"며 "이 외에도 메타버스 가입자들이 필요한 유통, 업무, 문화 등 다양한 분야의 사회·경제 서비스들이 제공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다.

기술이 발달하면서 메타버스 환경은 점점 더 실제처럼 구현돼 몰입감을 높이고



▲폭스바겐이 유니티 포마와 에디터를 사용하여 만든 'ID.4'의 광고 속 모습. 짧은 광고에는 실제 카메라 촬영으로 구현할 수 없는 샷과 각도에서 차량 내·외부를 볼 수 있다.

있다. 현실에 이제껏 존재하지 않던 가상세계를 구현하는 만큼 메타버스에는 다양한 범용기술*이 적용된다. 그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기술은 XR 기술이다. XR(확장현실)은

VR과 AR을 아우르는 혼합현실 기술을 말한다. 해당 기술은 인간의 오감 자극을 통해 정보를 제공하여 실제와 유사한 체험이 가능하다. XR 기술은 VR 기술과 AR 기술을 개별 활용 혹은 혼합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평소에는 일반적인 안경이지만, AR 기술 또는 VR 기술을 활용하면 안경 위에 필요한 정보를 표시하는 방식들이 있다.

메타버스는 기술적 진화뿐만 아니라 사회·경제 전반에서 큰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10일, 정부가 발표한 '가상융합경제 선도국가 실현을 위한 가상융합경제 발전전략'에서는 가상융합기술이 오는 2025년에 전 세계 약 520조 원 규모의 경제적 부가 가치를 창출할 것으로 전망하기도 했다.

이때, 메타버스 시대에 대응하기 위해 등장한 경제 개념이 '가상융합경제'다. 가상융합경제는 경제활동 공간이 현실에서 가상 공간까지 확장돼 새로운 경험과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것을 말한다. 가상융합기술이 제조·의료·유통 등 국가의 핵심 산업에 활용될 때, 더 큰 경제 성장을 가져올 것이라는 뜻이다.

그렇다면 앞으로 메타버스는 우리 생활에서 어떻게 활용될까? 한 연구원은 "학생·시민들의 교육과 행정 등 공공서비스에도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다양한 아이덴티티를 갖는 '디지털 부캐'의 시대가 열릴 것으로 보인다"고도 답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세상을 바꾼 것처럼 메타버스도 세상을 충분히 바꾸어 놓을 수 있다. 인터넷 시대를 넘어 이제는 메타버스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 미래 우리의 삶에 많은 영향을 미칠 메타버스에 주목해보자.

* 범용기술 : 증기기관, 전기, 인터넷처럼 경제 전반에 적용돼 생산성 향상 등을 유발하고 다른 기술과 상호작용을 통해 산업혁신에 기여하는 기술

김기현 기자

kimjihun30@gmail.com



재선 서울시장의 더 큰 깨달음을 더해, 오세훈

〈편집자주〉

지난 4월 7일 진행된 '2021 재·보궐 선거'에서 오세훈(국민의힘)이 제38대 서울특별시시장으로 선출됐다. 재·보궐 선거는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빈자리가 생겼을 때 자리를 보충하기 위해 실시하는 선거다. 이번 선거는 서울시장 공석을 메꾸기 위해 실시됐다.

서울시장의 임기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인 2022년 6월 1일까지다. 오 시장은 “짧은 임기 동안 서울을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재선 서울시장의 능숙함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청년교육서비스 ▲일자리 ▲주거 안정 ▲육아와 성범죄 ▲대학가 문화에 관한 정책을 제시했다.

본지는 선거 전 서울권대학언론연합회 내 서울시장 보궐선거 특별위원회에서 진행한 연합취재를 바탕으로 작성했다.

한혜정 기자 hj716@hansung.ac.kr

청년의 경쟁력 강화에 주목하다

'2020 전국민 금융이해력 조사'에 따르면 청년의 금융이해력은 64.7%로 OECD 평균인 62%를 겨우 넘긴 수준이다. 오 시장은 청년의 금융 문맹률을 낮추면 청년의 경쟁력이 강화된다고 봤다. 그는 '서울 영테크'와 '청년 몽땅 정보통' 정책으로 청년에게 경제적 지원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정보제공시스템을 강화할 예정이다.

'서울 영테크'는 청년에게 체계적인 자산 형성 방법을 알려주는 서비스다. 청년은 전문가의 자산 관련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오 시장은 “올바른 재테크 지식을 제공함으로써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고 약속했다. 컨설팅은 온·오프라인 통합 플랫폼을 통해 받을 수 있다. 예산 등 온라인 플랫폼의 세부사항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그는 “체계적인 시스템을 활용하면, 큰 예산 없이 양질의 전문 컨설팅 제공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청년 몽땅 정보통'은 주거 및 창업지원 등에 대한 정보를 한번에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현재 청년 지원 사업을 확인하려면 중앙정부, 서울시, 자치구별로 각각 검색해야 한다. 오 시장은 인공지능을 활용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에서 답을 찾다

오 시장은 중소기업의 발전을 통해 청년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고자 한다. 그는 중소기업에 '서울형 기업'을 인증할 예정이다. 서울형 기업은 '서울이 보증하는 기업'을 의미하며, 중소기업 취업의 대표 기피 사유인 낮은 인지도와 신뢰도 개선을 목적으로 한다.

오 시장은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해 특별산업분야를 지원하기보다는 기업 규모에 따라 지원할 예정이다. 기존 지원 기업이 IT분야 등에 한정됐던 것을 고려한다면 오 시장의 정책은 중소기업 자체를 살리기 위한 정책이라는 점에서 차별점이 존재한다.

그럼에도 오 시장은 서울형 기업 인증만으로는 청년의 중소기업 지원을 높이는 데 한계가 있다고 봤다. 그는 “현재 위라벨은 개선되고 있지만, 청년의 실업난은 더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청년 실업률은 지난달 4년 만에 다시 10.1%라는 두 자릿수를 기록했다. 오 시장은 “일자리 확충에 전념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세금으로 만들어 낸 일자리가 아닌 기업을 도와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시 주거 안정시킨다

현재 서울시는 만 19~39세 이하의 중위소득 120%(약 204만 원,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월급 약 212만 원에 못 미치는 수준) 이하 청년 1인 가구 5,000명에게 월 20만 원의 월세(최대 10개월)를 지원하고 있다. 오 시장은 “현 정책의 수혜대상이 적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고 기존 정책의 부족한 점에 대해 짚어냈다. 그는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해 지원대상을 연간 5천 명에서 5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확대하는 지원만큼 예산 마련이 가능하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오 시장은 “수혜대상을 5만 명으로 확대 시 연간 1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한 것으로 추계된다”며, “서울시 재정 여력상 충분히 감내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오 시장은 용적률*과 높이규제 완화 등을 통한 도시계획규제 혁파 공약도 제시했다. 도시계획규제는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한 제도이며, 충고를 제한하는 등의 방식을 사용한다. 오 시장은 “서울은 주택공급이 가능한 토지가 제한적”이라며, “서울의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성평등 위한 체계 지원과 인식 개선에 힘쓴다

서울의 인구 밀도는 높지만, 출산율은 전국 꼴찌 수준이다. 오 시장은 출산율 제고를 위해 '돌봄 서울'을 내세웠다. '돌봄 서울'은 ▲야간 보육 시설 확충 ▲연락처 가정 보육 ▲공동육아 지원센터 등을 통해 육아에 대한 국가와 사회의 책임을 강화한다. 그는 “가정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와 국가가 함께 돌봄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며 “가정 내에서도 남성과 여성이 돌봄의 동등한 주체가 되어 균형 있게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성범죄의 예방과 처벌 정책은 이번 서울시장에 요구되는 중요한 덕목 중 하나였다. 오 시장은 권력형 성범죄 예방을 위해 전담기구를 설립해 독자적인 권한을 부여할 예정이다. 그는 “무관용의 원칙으로 성비위(性非違)를 한 번이라도 일으키면 바로 퇴출하는 윈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엄격한 행정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약자 입장에서의 성폭력 범죄예방보호체계 강화와 예방교육의 의무화를 구축한다. 서울시 전 직장 내 성평등 노동환경을 위한 캠페인 역시 진행된다. 오 시장은 “성평등한 조직문화 마련이 곧 성범죄를 미연에 방지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다.



소속 정당
국민의힘

출생
1961년 1월 4일

학력
·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 학사
· 고려대학교 법학대학원 법학 석사·박사

경력
· 숙명여자대학교 법학과 겸임 교수(전)
· 제16대 국회의원(전)
· 한나라당 원내부총무, 최고위원, 청년위원회 위원장(전)
· 제33~34대 서울특별시시장(전)
· 한양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특임교수(전)
·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석좌교수(전)

기쁨보다 엄중한 책임감 느껴, 서울시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 것

대학과 지역 간의 상생을 꿈꾸다

오 시장은 “활력 넘치는 대학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서울에서 종합대학이 가장 많이 위치한 동북권 지역 내 학교 및 신촌 일대 학교를 대상으로 대학문화 캠퍼스 타운(이하 캠퍼스 타운)이 진행될 예정이다. 캠퍼스 타운은 대학교의 고유문화와 지원자원을 연계해 학생참여 콘텐츠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오 시장은 해당 사업으로 서울 내 대학 주변 상권이 활성화되고, 청년 창업도 늘어난다고 봤다. 캠퍼스 타운의 목표는 해당 지역의 주거지 및 상권과 상생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 다양한 캠퍼스 도시 인프라를 구축

하는 것이다. 서울시립대학교를 청라리 역세권과 연결해 젊음의 거리를 조성하는 등이 사업의 예시다. 오 시장은 “사업 추진 시, 대학·학생·지역사회의 참여를 권장하고 아이디어를 발전 시켜 더욱 체계적인 계획을 구상하고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그의 말처럼 활력 넘치는 대학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숙사 갈등 해소도 필요한 상황이다. 기숙사 신축을 둘러싼 서울 지역 주민과 대학생 간 갈등은 거의 모든 대학의 고질적인 문제다. ‘기숙사 갈등’은 주민의 생계와 학생의 주거가 상충한다. 오 시장은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시장이 된다면 당사자의 입장을 모두 들어보고 합리적으로 문제 조정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사진 출처 : 오세훈 서울특별시시장 선거캠프

오세훈 서울시장은 시장직을 사퇴한 지 10년 만에 3선 서울시장으로 복귀했다. 그는 선거 다음 날인 4월 8일부터 곧바로 서울시장 업무에 착수하면서 “분골쇄신(粉骨碎身)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또한, 그는 “전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피해자의 업무 복귀를 챙기겠다”고 약속했다. 1년 남짓의 임기 동안 그가 내세웠던 공약들이 실현될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된다.

*용적률 : 건축물 총면적의 대지면적에 대한 백분율로, 지상면적의 총합을 대지면적을 나눈 값



제15회 사진공모전

당신의 순간을 보여주세요

모집기간

3월 29일(월) ~ 5월 7일(금)

참가대상

본교 전 구성원(학부 · 대학원 재학생, 교수 및 직원)

주제

자유(주제에 제약 없음)

제출사항

응모작, 참가신청서 (교내 홈페이지 '비교과공지'에서 다운로드)

제출방법

① 온라인 제출

hansungnews@gmail.com로 제출

* 응모작 규격 : 장축 4000px 이상의 jpg 파일

② 오프라인 제출

한성대신문사(중문 우촌관 앞 IBK기업은행 건물

2층)에 직접 제출

* 응모작 규격 : 8X10in(20.3X25.4cm) 인화 사진

수상작 발표

한성대신문 제568호 (6월 7일 발행)

시상내역

최우수작(1명) : 상장 및 상금 40만 원

가작(1명) : 상장 및 상금 20만 원

비교과 포인트

대회참가 5pt / 최우수작 20pt / 가작 10pt

문의사항

한성대신문사 02)760-4186

박희연 편집국장 010-3412-1839

- ※ 1인당 최대 3점 응모 가능합니다.
- ※ 참가신청서의 파일 이름은 '(제출자 이름)_제15회 사진공모전 참가신청서'로 합니다.
- ※ 작품의 파일 이름은 '(제출자 이름)_[작품제목].jpg'로 합니다.
- ※ 타 사진공모전 출품작의 중복지원을 불허합니다.
- ※ 스마트폰, 필름사진, DSLR, 미러리스로 촬영한 사진 모두 규격 준수 시 응모 가능합니다.
- ※ 포토샵 등 합성과정을 거친 사진은 불허합니다. (단, 간단한 색보정은 허용)
- ※ 제출한 응모작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 ※ 심사는 외부 심사위원이 진행합니다.
- ※ 최우수작이 없을 시 가작만 시상합니다.

· 삼 학 송 ·

무늬만 소통

지난 3월 24일, 본지는 대학본부로부터 간사의 재계약을 8일 앞두고 재계약 불가 통보를 받았다. 또한 본부는 더 이상 간사를 채용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간사 인원 감축을 통보했다. 본교의 재정이 줄어들었다는 이유에서다.

간사는 졸업생 조교로,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본지의 일원으로 함께했다. 간사는 학교와의 의견 조율, 기사 교열·교정을 하며, 신문 발행 과정에 참여한다. 전문성이 요구되는 역할이기 때문에, 본지에서 기자로 퇴임한 사람 중에서도 언론사 및 기타 매체의 경험이 있는 졸업생이 간사를 맡아왔다. 최근 외부에서 진행되는 기자 교육이 어려워지면서 기자의 전문성을 위한 교육도 편집국장과 나눠 진행하고 있었다.

본부의 통보에 기자단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얼마 전 수습기자를 대거 선발해 일주일에 4일 이상을 투자하던 기자 교육 중단은 당연지사하고, 당장 신문 발행 준비에도 차질이 생겼다. 본지는 해당 사안을 받아들여 대책을 세울 수 있는 유예기간을 달라고 본부에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본부는 간사 인원 감축 방편으로 TA 조교(재학생조교)를 배치해주기로 했다. 하지만 당장 학교에 재학 중인 신문사 퇴임 기자가 매년 1~2명뿐이라 그 자리를 채울 인원을 찾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 언론관련 학과도 없는 마당에, 퇴임 기자를 제외한 재학생 중 과연 신문 발행 생태를 잘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지도 미지수다. 그동안 본지 기자단이 알아서 신문을 제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또한 본부는 프레젠테이션 조교의 역할에 간사의 역할을 더하자는 제안을 했다. 현재 프레젠테이션 내에는 방송국과 영자신문사, 신문사 총 3개 기구가 소속돼 있다. 각 기구에서 진행하는 행사부터

예산처리, 방송국 시설 및 영상 관리, 그 외 기구에서 발생하는 모든 행정업무를 조교 1명이 담당하고 있다. 지금도 조교 1명이 담당하기 벅거운 업무량인데 간사의 역할까지 맡기에는 물리적 시간이 턱없이 부족하다.

물론 본부의 제안처럼 간사가 조교의 업무를 함께 하는 타 대학 신문사가 있다. 다만 그런 경우, 간사는 교직원과 함께 행정 업무를 한다. 업무가 가중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중앙대학교는 신문사가 속한 미디어센터 내에 교직원 2명과 간사1명이 행정업무를 하고 있다. 여기서 간사는 신문사 행정 업무 일부와 신문 발행 업무를 맡는다. 경희대학교 역시 신문방송국 내 1명의 교직원이 있으며, 간사는 신문사 일부 행정 업무만 하고 있다.

무엇보다 해당 사안이 결정되기까지, 본지 기자단은 어떤 논의에도 초대받지 못한 채, 간사가 하루아침에 사라지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본부는 이미 소통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있다. “학내 구성원 모두가 다른 구성원들에 대한 존중과 신뢰를 갖게 되었으면 좋겠다.” 이창원 총장이 취임 당시 본지와 했던 인터뷰 중 한 부분이다. 이 총장은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하는 소통을 통해 혁신이 이뤄진다고 했다. 그러나 간사 인원 감축 과정을 보면 그 의미를 잊은 듯하다. 어디에도 존중과 신뢰는 찾아볼 수 없었다.

본부는 해당 사안에 대해 본지의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당사자인 본지의 의견 수렴 없이 진행된 인원 감축을 중단할 필요가 있다. 본부는 본지와 함께 간사 인원 감축을 대신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 무늬만 소통이 아닌 진짜 소통을 보여줘야 할 때다.

박희연 편집국장



외면에 묻혀진 그들의 외침

지난 4월 3일,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는 총 140여 명의 대학생과 함께 '4월 3일 2021 등록금 반환 및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여의도~청와대 10km 행진'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피켓과 현수막을 들고 약 10km의 거리를 비를 맞으며 걸었다. 등록금 반환에 대한 외침이 시작된지 1년이 지났다. 이제 교육부는 우리에게 답을 내놓아야 할 때다. 조정은 기자

■ 기자수첩

최근 학내 익명 커뮤니티는 학생회의 회식 소식으로 뜨거웠다. 지난 3월 25일, 컴퓨터공학부(이하 컴공) 학생회 소속의 한 학생이 '컴공 학생회가 3월 28일에 단체 회식을 진행할 예정'이라는 폭로글을 올렸다. 이어 그는 회식 관련 카카오톡 단체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대화 내용 속 학생회장은 "현 상황에서 회식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안전하게 진행할 예정이니 비밀로 해달라"고 말했다. 해당 게시물은 학생의 공분을 샀고, 학생회를 비판하는 많은 댓글이 쏟아졌다.

다음 날, 컴공 학생회장은 사과문을 올렸다. 첫 사과문에서 학생회장은 "회식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며, "올해 학생회 활동은 선후배와의 교류를 통해 친해지는 것 말고는 없을 것 같다"고 밝혔다.

누군가의 용기가 없더라도

매일 600명 내외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확산세를 막기 위해 5인 이상 사적 모임을 금지한 상황이다. 본교도 블렌디드 강의와 외부인 출입 통제 등을 통해 방역에 힘 쓰고 있다. 학생 역시 온라인으로 강의를 듣고 팀 프로젝트를 하며,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모두가 방역을 위해 노력하는 상황 속에서 5인 이상의 단체 회식을 결정한 학생회장의 판단은 안일했다.

또한, 학생회에서 부원들과의 친목은 분명 필요하지만, 가장 우선될 수는 없다. 학생회는 학생을 대표해 학교와 소통하고, 학생의 의견을 듣고 불편함을 개선하는 일이 먼저다.

회식 없이 친목을 다지는 방법은 많다.

대면 만남만이 친해지는 길은 아니다. Zoom과 같은 화상회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비대면 회식을 통해 다 같이 이야기하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면 충분히 친해질 수 있다.

아외 활동이 제한되는 답답한 요즘, 주위 사람과 모임을 가지고 싶고, 만나 놀고 싶은 마음은 모두 같다. 하지만 코로나19가 우리를 위협하는 상황에서 잠깐의 판단이 주변 사람에게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무엇보다 학생회는 학생을 대표하는 기구다. 대표로서 모범을 보여야 하는 의무가 있다. 누군가의 용기가 없더라도 학생에게 모범이 되는 학생회가 되길 바란다.

김기현 기자

■ 의화정

소통에 대한 반성

최근 눈에 들어온 영상이 하나 있다. 명문대 출신의 종종 장애인 청년이 장애인 관련 정책에 대해 말하는 영상이다. 결국 누구라도 차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재산이 많아도, 외모가 뛰어나도, 박식해도 결국은 늙고 병드는 수순을 밟게 된다. 그럼에도 사람은 알게 모르게 계속 서로 키 재기를 하며, 상대를 평가한다. 이것은 소통을 막는 요소 중 하나이다.

이때,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공감적 경청'이다. 공감적 경청은 상대의 말에 귀 기울여 들음으로써 그의 감정까지 깊이 공감해주는 것이다. 상대의 말에 꼭 동의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다. 반대의 입장이라도 들으려 노력한다는 말이다. 공감적 경청은 지식으로 배워서 아는 것보다 자주 실천하는 게 더 중요하다.

입장 차이는 어쩔 수 없다. 차별도 어쩌면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장애인 문제와 같은 타인의 아픔에 순간 눈을 돌리지만 하나의 자료처럼 지나가 버리는 알пах은 김수영의 '어느 날 고궁을 나오면서'처럼 본인 스스로도 소심하고 평범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대학 역시 공감적 경청을 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대학은 벚꽃이 지는 순서대로

대학이 사라진다는 벚꽃 괴담과 급변하는 교육 상황 속에 시달리고 있다. 그들은 소통의 선을 어디까지 잡아야 하는지 몰라 고민한다. 소통의 과정은 쉽지 않고, 다 설명하는 게 불필요하게 느껴질 때도 있을 것이다.

무서운 사실은 불통의 결과가 가시적이지 않다는 점이다. 불통은 차곡차곡 쌓여서 오래된 곰팡이처럼 벽이나 천정에서 누수를 일으킨다. 집을 수리해본 사람은 알 것이다. 누수처럼 고치기 힘든 요소도 없다. 누수로 인해 결국 대대적인 공사를 실행하게 된다.

이제는 공람하는 정보도 많아지고 소통의 창구도 많아졌다. 다들 어려운 시기고 비대면 소통이 많아졌기 때문이다. 한성대신문도 그 중간에서 중요한 소통의 역할을 하고 있다.

알пах한 성장과 사유를 듣지 않기 위해 공적인 글 이외는 쓰지 않으나 한성대신문의 숨은 독자에게 두서없는 글을 쓰게 되었다. 학생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알기 위해 앞으로도 학교 신문을 잘 보고, 수업 공지글의 문제도 다듬고, 소통보다는 전달만 하고 싶은 마음도 다듬어야겠다.

이희영(상상력교양대학 기초교양학부) 교수

■ 낙산에 올라

사실과 왜곡 사이 길 잃은 드라마

태조 이성계가 환각에 빠져 무고한 백성들을 죽인다. 그의 고조부는 기생에 빠져야 반도주한다. 충녕대군은 외국인 사제와 통역사에게 중국 전통음식인 전병과 중국식 만두 등을 대접한다. 지난 달 방영 2회 만에 폐지된 드라마 '조선극마사'의 장면이다. 시청자는 도가 넘은 역사 왜곡에 분노했다. 비록 픽션이라고 하지만 드라마 배경은 조선이며, 실존 인물을 모티브로 한 드라마다. 해당 문제는 조선극마사 뿐만 아니라 다양한 드라마에서 발생하고 있다.

최근 중국과 일본 등에서 우리 전통문화를 자신들이 원조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우리와는 역사 문제인 '동북공정'부터 이른바 '문화공정'까지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드라마 속 역사 왜곡은 시청자에게

큰 충격으로 다가오는 것이다.

역사 왜곡은 드라마 속 시대를 가리지 않고 등장한다. 현재 방영 중인 드라마 '빈센조'의 경우, 중국산 비빔밥을 먹는 장면이 나와 논란이 생겼다. 해당 드라마는 TV뿐만 아니라 OTT 플랫폼인 넷플릭스에서도 방영 중이다. 외국인 시청률이 높은 넷플릭스에서 우리나라의 전통음식인 비빔밥을 중국산으로 먹는다면 비빔밥의 출처를 모르는 외국인은 중국의 음식으로 오해할 수 있다. 이러한 연출은 중국이 문화공정을 주장하고 있는 요즘,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는 꼴인 셈이다.

어떤 식이든 우리의 역사를 왜곡해서는 안 된다. 드라마가 허구의 이야기라 하더라도 드라마를 보는 사람에게 영향을 주고

사실과 관계없이 각인 효과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성신여자대학교 서경덕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중국의 네티즌은 '당시 한국의 전형적인 모습'이라며 드라마 장면을 옹호하기 시작했다. 중국이 문화공정을 펼치고 있는 와중에 또 하나의 빌미를 제공한 셈"이라고 말했다.

우리는 드라마를 보며, 재미를 느끼기도 하지만 알지 못했던 사실이나 역사를 배우기도 한다. 드라마의 제작진과 작가는 드라마가 왜곡되지는 않았는지 항상 유의하면서, 드라마의 영향력을 의식해야 한다. 시청자 역시 우리 문화를 더욱 이해하려는 노력과 지키고자 하는 의지가 필요하다. 오랜 시간 유지되고 이어져 온 우리 문화와 역사의 소중함을 잊어서는 안된다. 유연희(CT 1)

한성대신문 오피니언면은 학내구성원의 참여로 이뤄집니다.



동정란

홍승린(사회과학부) 교수
홍 교수는 2021년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회 심의위원으로 활동한다.

한성프레스센터 행정연구원 인원 감축에 대한 한성대신문사 입장문

지난 24일, 한성대신문사(신문사)는 대학본부로부터 간사의 재계약을 8일 앞두고 간사 인원 감축을 통보 받았다. 간사는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본부와 학생기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신문 편집 및 기자 교육 등 중요 업무를 담당해온 한성프레스센터의 행정연구원이다. 갑작스런 통보를 받은 신문사 기자단은 극도의 혼란 속에 있으며, 소통 없이 절차만을 강조하는 대학의 행정에 문제를 제기한다.

첫째, 한성대신문사는 대학본부의 일방적 조직개편을 지탄한다.

본부는 간사 인원 감축을 결정하는 동안 단 한 번도 당사자인 신문사와의 의견 수렴 과정 및 논의를 거치지 않았다. 간사 인원 감축 결정 역시 본부가 아닌 간사로부터 전달받았다. 당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총장과의 만남을 요청했지만, 본부는 ‘프레스센터장을 거쳐 오라’, ‘절차를 지키라’며 요청을 거절했다. 당사는 본부의 결정을 받아들여 1년의 유예기간을 달라 요청했으나, 이마저도 거절당했다.

둘째, 한성대신문사는 대학본부의 언론탄압을 규탄한다.

간사 인원 감축 통보는 개인의 실직 문제가 아닌, 사실상 언론탄압이다. 본부는 30년 이상 유지된 간사 체제의 공백을 학생 기자에게 떠넘겼다. 당사 내 9명의 학생기자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결정이다. 학생을 무시한 본부의 결정은 존중과 신뢰를 기반으로 소통하겠다는 본부의 행보가 무너졌음을 보여준다. 또한 간사 인원 감축은 학생기자와 취재처 간의 미증물을 파괴하는 행위이며 그로 인해 대학언론의 객관성을 중대히 훼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학과 그에 종속된 학생기자라는 계층적인 구조를 통해 중립성에 대한 강한 위험성을 초래할 수 있다.

셋째, 한성대신문사 현장과 전혀 맞지 않는 TA 조교 제도는 존속할 수 없다.

본부가 제시한 TA조교 제도 역시 당사의 실질적 운영과는 동떨어진 제안이다. 2019년 잠시 TA 조교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이는 갑작스런 졸업생 간사 인력 공백에 대한 임시방편이었을 뿐이다. 본부는 당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TA 조교로 임용됐던 재학생 간사는 방학에 무급으로 신문 편집 활동을 도왔고, 기자 교육을 진행하는 데에도 큰 어려움을 겪은 바 있다. 따라서 TA 조교 제도가 문제없이 운영된다는 것은 본부의 일방적 주장일 뿐이다.

넷째, 현실적인 측면과 동떨어진 대학본부의 모호한 후속대처에 강한 의구심을 표한다.

지난 9일 학교홈페이지(e-class)에 게재된 공지에 따르면, 본부는 당사에 기자교육 프로그램 도입 등 최대한의 지원을 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정 건정성 부족으로 인건비마저 감축해야 한다는 본부의 주장에 비추어 볼 때, 당사 운영에 지장 없는 교육비용이 얼마나 투자될지 모르는 상황이다. 또한 이는 학교홈페이지에만 통보할 것이 아니라, 당사와 미리 논의했어야 하는 부분이다. 당사가 지속적으로 본부에 면담 및 인터뷰를 요청했음에도 무응답으로 일관하다, 이런 방식으로 통보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러울 따름이다.

신문사는 소통 없는 대학의 일방적 조직개편에 부당함을 느끼며, 총장과 이하 처장에게 다음 세 가지 사항의 이행을 요구한다.

하나. TA조교제도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졸업생 간사 체제의 기간을 1년 연장하라.

하나. 신문사와 의견 수렴의 과정을 갖고 해결책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라.

하나. 일방적인 행정에 대해 사과하라.

신문사는 소통을 통한 의견 수렴 절차 없이 결정된 사항을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전하는 바이다. 학내 언론으로서 대학본부의 대책 마련과 반성을 촉구한다.

2021.04.12

한성대신문사 기자 일동